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음악교수 실제에 대한 연구*

최 미 영** · 정 다 은***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음악교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실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전국 초등학교 교사 235명의 음악교수효능감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위 20% 집단을 추출한 후 다시 기초변인들을 유사하게 고려하여 각각 2명씩 총 4명의 교사를 선정하여 비참여관찰 및 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 간에 동기유발, 음악수업 활동 및 내용, 음악활동평가, 음악연수 참여 동기 및 음악연수의 현장 활용도,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환경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음악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유사한 실체를 보였고, 교직 이후의 음악적 경험, 음악교육에 대한 동료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시각, 질 높은 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에서는 수준과 상관없이 차이가 나타났다.

* 주제어 : 음악교수효능감, 음악교육실제, 초등음악교육

차 례

I. 서 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및 절차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
2.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없는 부분

I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B00490)

** [책임연구자]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choimiyong@dnue.ac.kr)

*** 충현초등학교 교사(jde01@hanmail.net)

I. 서론

학교교육은 학교제도,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및 시설, 재정, 학부모의 교육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면서 학업 성취를 포함한 학생들의 모든 학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부모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박관성, 1998). 그러므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효율적인 교육을 구성하는 어떤 요인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나 수업 상황에서 보이는 교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나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 영역으로 대두되어 왔는데(임무경, 2008), 교사의 교수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교사 신념이다. 교사의 교육 신념은 교사 자신의 인식, 판단, 행동, 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 교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념 중 교사 자신의 지도능력에 대한 신념인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행동과 태도를 잘 설명해주는 예측 변인이다(김유정, 2005).

교사효능감은 1974년에 미국 Rand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Barfield & Burlingame, 1974)를 통하여 처음으로 구안된 개념으로, Armor 등(1976)과 Berman과 McLaughlin(1977)이 이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을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로 개념화하면서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교사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Ashton과 Webb(1986)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교사의 상황-특수적 기대가 교사효능감이라 하였고, Guskey과 Passaro(1994)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이 교사효능감이라 정의하였다. Tschannen-Moran과 Woolfolk-Hoy(2001)는 학생들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자신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판단이 교사효능감이라고 하였다(김아영, 2004; 임성택, 20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수효능감이란 교사의 교수행위가 학생들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 교수 변인이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행동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의미한다.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최초의 2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수효능감 정도와 학습자 수행력, 목표 성취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육적 효과가 높은 교수전략과 새로운 교수법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Armor et al, 1976; Berman & McLaughlin, 1977). 이어 교수효능감이 교사의 수행에 있어 매개 변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Ashton, 1984; Ashton & Webb, 1986; Cooper & Good, 1983; Denham & Michael, 1981).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을 동기 유발시키는데 더 높은 능력을 보이고, 수업에서 많은 학습 자료를 투입하려는 준비와 실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학습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행동을 골고루 시도하고 사용한다. 또한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접촉이 친밀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수업 중 학생들의 학습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생의 동기에 대해 비관적인 보호적 관심을 선호하고, 교실 내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도나 학문적인 일에 투자하는 시간도 더 적고, 학생들이 실패하였을 때 포기하였으며,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해답을 주었고,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강제력에 더 의존한다. 교수효능감에 따른 교수 실재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1>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비교

구 분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
개인적 성취에 대한 지각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자신이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자주 실망하고 좌절한다.
학생의 성취에 대한 기대	학생의 진보를 기대하며 학생들이 대부분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준다고 믿는다.	학생들의 실패를 예상하며 수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이 많다.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생의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수법이나 교수기술을 검토한다.	학생의 학습정도는 학생에게 책임이 있고 학생의 학습 실패의 원인을 가정환경, 능력, 동기, 태도 등에서 찾는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자신과 학생들에게 알맞은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고 전략 수립도 없다.
정서	자신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학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주 실망한다.
학생 통제관	자신에게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가르치는 일에 무력감을 느낀다.
민주적 의사결정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는데 학생들을 포함시킨다.	수업목표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한다.

출처: Ashton(1984), p. 29.

교수효능감은 구체적인 교수 상황과 맥락 및 교과내용에 관한 지식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Woolfolk, Rosoff, & Hoy, 1990). 음악교육에 대하여 갖는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수업에서 실행하는 음악활동에서 교사의 교수행위가 학생들의 음악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교사 자신의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수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수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수업제시, 교실관리, 발문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 Saklofske, Michayluk & Randhawa, 1988).

찾은 교육과정의 개정과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인한 음악수업 시수의 부족, 음악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관리자의 인식 결여, 경쟁적 입시 제도로 인한 중압감, 음악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태도의 변화 등은 음악교사들에게 좌절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최미영, 2012a).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교사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교과를 직접 지도해야 하고, 음악교과는 일반 교과에 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과내용적 지식’의 분량이 많고 실기로 인한 수업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음악 수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워 음악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정다운, 2011).

교수효능감은 심리적 구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악교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음악교사의 사기 및 의욕 저하는 음악교수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음악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은 학생들의 음악활동에 무의식적으로 전이되거나 음악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들이 음악교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고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교수 실재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이 실재 음악교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은 음악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음악교수 실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을 위하여 먼저 실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50부의 음악교사효능감 척도를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였다. 이 후 회수된 척도 검사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자료 활용이 어려운 15부를 제외한 235부를 연구자료로 채택하여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점수를 빈도 분석하였다. 검사 점수 결과를 토대로 음악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상위 20% 집단과 음악교수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하위 20% 집단을 각각 추출하고¹⁾, 다시 두 집단에 속한 교사들 중에서 학력, 경력, 담당 학급 등 기초변인들을 유사하게 고려하여 각각 2명씩 총 4명의 교사를 비참여관찰 및 면접의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교사의 기초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교사의 기초배경

구분		기초배경			
		학력	경력	담당학급	음악교과지도영역 점수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	H1	대학원졸	16년	6학년	66
	H2	대학원졸	19년	3학년	65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	L1	대학원졸	13년	3학년	36
	L2	대학원재학	10년	6학년	36

2. 연구도구 및 절차

1)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음악교수효능감 측정을 위해 최미영(2012b)이 개발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Music Teacher 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음악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5개 직무수행 영역(음악교과지도, 생활지도,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행정업무, 대인관계)의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1)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상·하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38, p<.001$).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점수는 6단계 평정 척도의 ‘전혀 아니다’에 1점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에 6점을 주어 합산한 것을 총점으로 한다. 총 11개 문항의 최고점은 66점, 최저점은 1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면접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음악교수 실제에서 교사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 및 음악교육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권주영, 2007; 방은영, 박찬옥, 2005)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면접에 앞서 연구대상이 아닌 초등 음악교사 3인을 대상으로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질문 내용의 적절성 혹은 추가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면접 내용을 완성하였다.

면접 질문은 크게 연구대상의 음악관련 경험과 음악교육과 관련된 태도, 음악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설정하였다(표 3). 음악관련 경험에는 교육대학 이전의 음악경험과 대학, 교직에서의 음악교육경험으로 크게 세 부분의 시기로 나누었으며, 음악교육과 관련된 태도에는 음악에 대한 태도와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음악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음악교육과 음악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기타 질문으로 앞으로 더 나은 음악교육을 위해 교사, 학교,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표 3> 면접 내용

구분	항목
음악교육 관련 경험	-대학 이전의 음악경험(학령기 이전 및 초·중·고등학교 음악경험) -대학 때의 음악교육경험 -교직에서의 음악교육경험
음악교육 관련 태도	-음악에 대한 태도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교육활동	-음악교육 목표 및 계획 -음악교육 내용 -음악교육 방법 -음악교육 환경 및 학습자료 -음악교육 평가
기타	-보다 나은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교사, 학교,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

본 면접은 음악수업 관찰이 이루어지는 중간 시기인 2012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대상 교사가 편리한 시간과 면접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일대일 면접의 방법으로 교사별로 1회씩 약 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진술이 반복되거나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면접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녹음되었다.

3) 음악수업 관찰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음악교수 실제에서 실질적인 음악교수장면을 관찰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김은심, 박수미, 2003; 조부경, 서소영, 2001)를 토대로 관찰 기초준거를 설정하고, 음악교수실제 관찰준거와 관찰 방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초등 음악교사 1인을 대상으로 예비 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 수업관찰을 통해 수정·보완한 관찰준거는 다음과 같다.

- 음악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 어떠한 음악 교수 방법 및 수업기술로 활동을 전개하는가?
- 어떠한 교수전략 및 수업형태를 사용하는가?
- 활동의 확장이 이루어지는가?
- 음악수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 음악활동을 진행하는 교사의 태도는 어떠한가?

본 관찰은 교사 1명당 5회씩 총 2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관찰 기간은 2012년 5월과 6월 약 두 달에 걸쳐 촬영전문가가 연구대상인 초등 음악교사 4명의 각 학교에 찾아가 음악 수업을 촬영하거나 연구대상 본인이 직접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평소에 연구대상들이 하던 수업 그대로를 촬영하였으며, 비참여 관찰을 함으로써 연구자에 의한 상황의 통제를 최소화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음악수업 녹화 자료와 면접 내용 녹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들 자료의 전사본을 만들었다. 전사 자료는 연구자 2인이 검토하고 연구대상 교사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완성된 전사본을 가지고 수차례 정독하면서 협의를 통해 범주별 자료 분류와 내용 분석을 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사례 별로 분류하고 삼각 측정법(data 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결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Lincoln & Guba, 1985).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음악교수 실제를 분석한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과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과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음악교육활동인 수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수업 관찰 분석 기준을 크게 음악수업지도, 학생과의 상호작용, 수업환경으로 나누어볼 때, 세 영역 모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음악수업지도

수업에서 중요한 것이 해당 차시에서 설정한 학습목표의 성취라고 할 때, 이를 위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은 수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수업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동기유발활동을 전개하였다.

H1 : 오늘 공부할 노래가 이렇습니다. 뭐가 문제죠? 가사도 없고, 곡명도 없어요.
무슨 노래지 답은 여러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H2 :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뭐라고 했죠? (중략) 선생님이 오늘은 가야금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연주해 줄 건데, 어떤 노래인지 한 번 알아 맞춰보세요?

위의 사례처럼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 목표의 안내에 있어 발문이나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학습 문제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하였다.

반면,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의 수업에서는 이렇다 할 특별한 동기유발이 없거나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단순히 상기시키는 수준의 질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분명한 수업목표의 제시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히 교사의 안내에 따라 수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L1 : 저번시간에 노래 배웠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신나게 해 볼게요. 음을 못 잡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듣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따라 하지 말고, 한 번 듣고 (중략) 생각나죠? 리듬감 있게 한 번 해 볼게요. 바로 앉고, 누가 턱 괴고 있나. 허리 피고요. 이거 보고 할게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L2 : 자, 리코더 없는 사람? 리코더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죠?
전체 차렷,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책 덮고, 책 덮고 열중 쉬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악수업의 전개에 있어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차이점이 더 확연히 나타났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모두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하였으며 수업의 진행은 대부분 발문법으로 하였다.

H1 :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가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학생 : 덩다, 새까맣다, 야자수, 벌레, 초원 (중략)

H1 : 이거 무슨 나무예요?

학생 : 바오밥나무

H1 : 맞았어. 바오밥나무. (중략) 이 사람은 누굴까?

학생 : 흑인

H1 :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사람. 막 달리기도 잘하고, 마사이족 들어봤어요?

학생 : 아~~

H1 : (마사이족에 대한 설명 중략)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백인이 9명이라면 흑인이 91명 정도 되는데 부자는 누굴까?

H2 : 오늘은 장구를 어떻게 연주할까?

학생 : 바르게

H2 :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르게 연주해야 돼요. (중략) 이 장구는 보니까, 여
기 통이 있죠? 뭐로 만들어져 있나요?

학생 : 가죽

H2 : 맞췄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중략) 이 조여 주는 것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하나요?

학생 : 조이개

H2 : 그래서, 장구를 칠 때에는 이 조이개를 어떻게?

학생 : 조여 줘야 돼요.

H2 : 조여 줘야 돼요. (중략) 다 하고 나면 조이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 : 풀어 줘야 돼요.

이와 같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문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발문에 응답함으로써 음악수업에 대한 적
극적인 행동과 태도는 물론 음악에 대한 확산적 사고 능력을 나타내었다.

<표 4>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의 음악수업 활동 및 내용

	수업 1	수업 2	수업 3	수업 4	수업 5
H1	-가사 익히기 -장단 치며 부르기 -말붙임새 익히기	-가사 바꾸기 -신체표현 하기	-주요 3화음 익히기 -돌림노래 -아프리카에 대해 알기 -‘바누와’ 노래 익히기 -아프리카 악기 소개	-화음 익히기 -봄웨커 악기로 화음 익히기 -킵타로 오스티나토 만들기 -만든 오스티나토를 연주하며 ‘바누와’ 노래 부르기	-오르프 악기 알기 -‘바누와’ 노래 반주에 맞춰 악기 연주하기 -케냐 노래 익히기 -오르프 악기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H2	-장구 구조 -장구 치는 법 -장구 치기	-오스티나토 -리듬박수 치기 -말리듬 만들기 -오스티나토 연주하기	-리듬전달놀이 -리듬 이어서 치기 (박수, 악기)	-노래 듣고 쓰임 맞추기 -메기고 받는 소리, 시김새 익히기 -일노래 부르기	-중국에 대해 알기 -중국 동요 ‘수건 돌려라’ 부르기 -노래 부르며 수건 돌리기 놀이하기 -중국 악기 소개

<표 4>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두 교사의 음악수업 활동 및 수업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H1은 매 차시 수업 주제에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표현 중 2~3가지 활동을 통합하여 수업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H2는 대상학년이 3학년이다 보니 H1처럼 여러 활동을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1가지 활동 영역만 선택하였어도 방법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여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두 교사 모두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자칫 이해 영역을 누락하거나 음악적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활동 안에 이해 영역이 녹아들어있으면서 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음악적 이론을 짚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 5>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이 음악수업 활동 및 내용

	수업 1	수업 2	수업 3	수업 4	수업 5
L1	-자진모리 장단 익히기 -장단 치며 노래 부르기	-‘시계’ 노래 익히기 -리듬치기 -돌림노래 하기	-돌림노래하기 -리듬치기 -말리듬 붙이기 -론도 형식 배우기 -악기로 오스티나토 연주하기	-작곡가 설명 -빈의 음악시계 감상 -가락선 그리기 -그림악보 그리기	-말 넣어서 리듬 읽기 -리듬게임하기
L2	-화음 정의 알기 -주요 3화음 익히기 -리코더로 화음 익히기	-화음 익히기 -론도 형식 알기 -‘엘리제를 위하여’ 감상 -‘비창 3악장’ 감상	-리듬론도 만들기 -가락을 주제로 한 론도 만들기	-민요 알기 -지역별 민요 특징 알기 -‘동당기 타령’ 부르기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설명 -‘금다래깡’ 노래 듣기 -지역별 민요 특징 알기 -장단 빠르기 알기 -중모리 장단 익히기 -‘금다래깡’ 부르기

반면,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두 교사의 수업은 다양한 활동보다는 단순한 활동과 그 활동이 반복되고, 활동들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활동과 수업주제와의 관련성이 적게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계획정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혹은 즉

흥적으로 진행되었다(표 5).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학생들과 활동을 함께 한다는 느낌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펴보는 교사라는 역할에 더 비중을 두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활동을 지시하며 전체 활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소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반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학생과 함께 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하였다.

음악활동평가 면에서도 차이점이 보였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과 낮은 교사들 모두 학년 초에 평가계획을 세우지만,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여 평가 계획을 역량껏 재구성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매 차시마다 학생들의 활동에 또래 아이들의 박수와 칭찬으로 상호평가와 교사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반면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학년 초에 세운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평가를 실시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매 차시마다 수시평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교사들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연수를 이수하고 연수내용을 수업에 활용하는데, 음악연수 참여 동기 및 음악연수의 현장 활용도에서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연수 참여 동기에 있어서 자신의 음악교수역량 강화와 음악교수 자료의 습득과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의 이유를 들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주위 동료들의 권유, 단순한 흥미나 관심, 연수 참여에의 의무감 등을 답하였다.

H1 : 교육과정이 계속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으면 정보를 빠르게 얻지 못하더라고요. 올바른 정보를 빨리 알아야 그것을 교과서에 넣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학회나 세미나, 워크숍 형태의 연수를 받았습니다.

H2 : 음악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자신이 없으면 애들한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책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연수를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L2 : 본교에 국악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동료교사를 도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국악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배우고 싶어서 찾아다녔어요.

음악연수의 현장 활용도에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적극적인 활용 태도를 보이거나 연수의 내용 수준이 학생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반면,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연수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렵거나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차가 크다고 진술함으로써 연수내용의 현장 활용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H1 :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변형한 후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H2 :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연수를 들을 때, 제 수업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L2 : 활용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학생들의 수준과 학교 여건 등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2)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수업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응답,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피드백, 교사의 억양, 말투 및 표정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H1 :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뭐가 생겼어?

학생 : 화음

H1 : 화음이 생겼지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화음을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미미 미 솔솔솔 도도도 도도도 몇 도예요?

학생 : 1도

H1 : 1도가 돼요. 파파파 라라라 파파파 도도도 뭐예요?

학생 : 4도

H1 : 4도가 되지. 다른 세상 얘기하는가 보다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봐. 도레미 파 네 번째 4도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미 솔 솔 도 뭐야?

학생 : 5도, 1도

H1 : 도미솔인데, 그렇지. 1도가 되지.

H2 : 자, 이제 더 재미있는 소리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한 번 알아맞혀 보세요.

학생 : 호랑이나 무서운 동물을 쫓을 때

H2 : 호랑이나 무서운 동물을 쫓을 때? 잘 들어보니까 여기 뭐가 나타났는데...

학생 : 추수할 때 참새를 쫓으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H2 : 맞아요?

학생 : 네

H2 : 맞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농부들이 뭐를 쫓는 소리?

학생 : 참새

H2 : 응, 새들을 막 이렇게 쫓아내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학생 : 2학년 때 배웠어요.

H2 : 배웠어요? 새 쫓는 소리? 자, 마지막. 이곳은 농촌이 아니고 저기 바닷가에서 들리는 노래입니다. 들어봅시다. (노래를 들려준다) 뭐 하는 걸까요?

학생 : 네, 고기를 잡으러 갈 때입니다.

H2 :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뭐를 해야 되지요. 나영이.

학생 : 배를 탈 때 그냥 타기는 너무 지겨우니까 노래를 하면서 배를 젓는 것 같습니다.

H2 : 참 발표 잘했다. 박수 한 번 보내줍시다.

L1 : 인물 이름이래요. 어느 나라? 헝가리 들어봤어요?

학생 : 네

L1 : 외국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시계 있잖아. 본 적 있어요?

학생 : 네

L1 : 장난감 병정이 빙글빙글 돌기까지 한대. 그런 모습을 보고 빈의 음악시계라는 곡을 만들어 낸거야.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학생 : 네

L1 : 지금 그림으로 그림악보 표현해 보니까 어때?

학생 : 재미있어요.

L1 : 또? 음악이 음표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L2 :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기준으로, 각각 위에 3도씩 쌓아버리면 화음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몇 개의 화음을 만들 수 있을까?

학생 : 세 개

L2 : 세 개?

학생 : 다섯 개

L2 : 다섯 개? (중략) 일곱 개죠. 왜? 도레미파솔라시. 그것을 1도부터 7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몇 도 몇 도 몇 도?

학생 : 1도, 3도, 5도

L2 : 1도, 3도, 5도, 또? (중략)

학생 : 1, 2, 5

L2 : 1, 2, 5? 막 던지네. 그 다음

각각의 사례는 4명의 교사와 그들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의 일부분이다. H1과 H2는 발문 자체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고 정답에 가깝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질문 위주였다. 6학년은 발표를 잘 하지 않는 특성에 맞게 H1은 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이 아는 대문에 한해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H2는 대체로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3학년 학생이다 보니 먼저 대답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다리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오답을 말할 경우, 틀렸다고 바로 지목하지 않고 왜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닌지를 말해줌으로써 정답에 가까운 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L1은 발표를 좋아하는 3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발문을 주로 하며 학생들의 느낌을 물어보는 발문을 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교사가 바로 예상되는 학생들의 대답을 말할 하는 경우도 있었다. L2는 발문이 음악적 이론(화음)을 물어보는 내용이 많았는데,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외워서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 많았다. 교사는 학생들 주위를 돌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면서 질문을 하였는데,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정답이 나올 때까지 옆 학생에게 넘기면서 계속 질문을 하였다.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권위적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교사의 말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와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H2는 학생들 본인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정도로 밝은 표정과 다정한 말투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대답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긍정적인 강화를 하였다. L1과 L2는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를 자주 사용하였다. L1은 L2에 비해 3학년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며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지만 H1, H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지시적인 말투가 많았다. L2는 밝은 표정을 주로 짓지만 가끔 학습 분위기가 냉랭해질 정도로 무표정을 지어 교실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였다.

L2 : 리코더는 부드럽게 해야 되요. 에이 누구야. 자 다시. (중략) 자, 반주에 맞추어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준비준비준비.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시네. (중략) 여기 좀 크게 하세요. 앞전해 빠져가지고.

학생 : 솔 어떻게 해요?

L2 : 저렇게 했으면서 질문하네. 솔 이렇게 해요. 솔 이렇게. 자 소리 내지 마.

위의 예는 L2의 공격적인 말투를 보여준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질문에 대해 가르쳐주기 전에 질문한 학생을 민망하게 만드는 말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잘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동일한 6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H1의 수업 분위기는 밝았고 학생들의 표정도 대부분 밝은 표정인데 비해 L2의 수업 분위기는 무거웠고 학생들의 표정은 무표정이 대부분이었다.

3) 수업환경

수업환경에서 나타나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차이점은 사용하는 학습 자료와 음악교구에서 나타났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콘텐츠인 i-Scream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수업동선이 제한적이고 교단 쪽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i-Scream이나 Tnara와 같은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감상곡을 들려줄 때,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줄 때 뿐이며 필요에 따라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리듬카드, 정간보 등 다양한 자료를 계획한 활동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컴퓨터 옆에만 있을 필요가 없기에 동선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의 수업에서는 오르프 악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으나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의 수업에서는 악기의 사용이 다소 부족하였다. H1은 음악실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음악교구사용에 큰 제약이 없는 환경이었고 베이스 리코더를 사용할 정도로 학교에 다양한 악기가 구비되어 있었다. H2는 비록 음악실이 아닌 일반교실이었지만 미니 장구, 소고, 리듬 악기가 잘 구비되어 있고 교사가 준비한 가야금, 오르프 악기 등 다양한 악기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L1은 L2에 비해서는 악기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과 비교하면 부족했다. 교사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장구를 준비했지만 학생들은 무릎장단으로 대신했고 학생들이 사용한 악기는 리코더, 소고, 간단한 리듬악기 정도였다. L1도 준비한 오르프 악기도 있었지만 학생 수에 비해 수량이 적었다. L2의 경우는 관찰한 수업 내용이 감상과 가창이어서 악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으나 총 5번의 수업에서 사용한 음악교구는 리코더뿐이었다. 면접에서 학교에 음악교구가 충분히 구비가 되어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한 음악수업에서 음악교구의 사용은 거의 없었다.

음악교구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학교관리자가 음악교구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학교마다 음악교구의 구비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본인의 사비로 음악교구를 구매하여 수업에서 사용할 정도로 열의가 높았으나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음악교구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상의 어려움을 느끼며 음악교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음악 지도에 있어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있어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음악교육환경이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좋지 않다고 해서 본인들의 교수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획한 수업에 맞게 환경을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음악지도 시 교육환경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의 이유를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보다 가르치는 시간의 부족이나 교사 본인의 탓이라고 하였다. 음악은 다른 교과보다 학생들 수준의 개별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일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가창 시범을 보일 때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거나 교과 간의 통합을 하고 싶어도 음악전담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음악지도 시 교육환경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진술하여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과 차이를 보였다. L1은 민요는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서 지도하기 어렵고, 조성곡과 독보학습은 학생들의 수준차가 커서 가르치기 어렵다고 하였다. L2는 음악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국악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2.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없는 부분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과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음악에 대한 개인적 경험, 음악과 음악교육의 필요성

에 있어 4명의 교사 모두 비슷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4명 모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거나 재학 중이어서 음악과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았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4명의 교사가 음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연구대상 교사의 음악 관련 경험

	대학 이전	대학	교직
H1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으며 합창활동을 하였음. 중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의 영향으로 음악회도 자주 가고 리코더에 관심을 갖게 됨	국악 활동	음악 연수(국악, 리코더, 악기 제작, 뮤직프로 자격증)
H2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으며 기악반 활동을 하였음	국악 동아리	음악 실기 연수, 직무연수, 학회 주관 워크숍
L1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피아노 학원을 다녔으며 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 현악부 활동을 하였음	리코더 교육	없음
L2	학창시절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고 팝송을 즐겨 들었음	시창	국악교육 연수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음악활동을 꾸준히 할 수는 없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길게는 중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을 하거나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오히려 대학을 다닐 때보다 음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연수와 대학원 공부를 통해 접하게 된 학회나 세미나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H1 : 저는 음악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좋아해요. 보고서 낼 때에도 '음악으로 눈을 뜨고 음악으로 눈을 감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중략) 학생들의 정서와 스트레스 해소, 자아실현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음악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과거의 음악경험이 음악수업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H2 : 음악은 삶에 활력을 주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표현방법이 다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음악이 학생들의 삶의 휴식처고 안식이 되는 느낌을 주고 자신들의 감정 표현 및 감정 정화를 음악을 통해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과거의 음악경험이 음악수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L1 : 음악은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음악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대학 이전 경험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수업을 할 때보다 음악수업을 할 때 더 즐겁고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L2 : 음악은 인생을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위해서 음악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고 과거 경험이 있어서 음악수업 할 때 더 자신감이 있어요.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4명의 교사 모두 학생들의 정서와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음악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며, 다른 교과교육활동을 할 때보다 음악교육활동을 할 때 재미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교사가 더욱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며, 양질의 음악교육환경을 위해 학교행정가와 교육기관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교사들의 음악교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 흥미 및 필요성에서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 간에 유사한 실재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측면이 음악교수효능감보다 개인적 음악 경험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이전의 음악적 경험으로 인해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고 중간에 음악 경험이 줄어들었다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관심이 교직에서도 발현되었기에 4명의 교사가 모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음악교육을 전공한 것으로 보인다.

2)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이 같은 교사 간에 상반된 교수 실재가 발견되었다.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서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수준이 낮은 집단의 교사 중에서는 수준이 높은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직 이후의 음악적 경험에 있어서 L1은 교직 이후 음악 연수나 음악 관련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다른 3명의 교사들(H1, H2, L2)은 다양한 음악 연수 경험과 음악 활동 경험을 하고 있었다. H1은 국악, 리코더, 악기 제작방법, 뮤직프로 자격증 등 특정 영역이 아닌 여러 방면의 연수를 받았고, H2는 음악 실기 연수, 교육과정 연수, L2는 국립국악원 연수, 국악 실기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받은 내용은

음악교수효능감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6).

향후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동료교사와 교육기관에 바라는 점에 있어서 H1, H2, L1은 동료교사들이 음악교과를 무시하거나 타 교과와 차별을 하지 말고 음악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지만 L2는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전담하여 음악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육기관에 바라는 점은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 지양,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사 중심의 음악활동 지양, 다양한 음악 직무 연수 활성화 등 음악교수효능감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답하였다.

음악교육에 대한 동료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시각에서는 H2를 제외한 3명의 교사들(H1, L1, L2)이 학교행정가는 음악을 행사적인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고 음악교육을 수상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2는 학교행정가 역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를 위해 음악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음악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H1과 H2의 반응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H1은 학부모들이 음악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H2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공부에 우선이고 차후에 여유가 될 때에만 음악교육을 찾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음악교수효능감 정도에 따른 음악교수 실체가 어떠한지 질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음악교수 실체는 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분과 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첫째, 음악교수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는 동기유발, 음악수업 활동 및 내용, 음악활동평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환경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하였고,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연계성 있고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속적인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활동평가에 있어서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년 초에 세운 평가계획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로 상호평가 및 교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특정교과

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의 실제 교과지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 Saklofske, Michayluk & Randhawa, 1988)를 지지하는 결과로,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교수 실재의 차이는 음악수업지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줄 뿐 아니라 학생과 함께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준 반면,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실패하였을 때 쉽게 포기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보다는 직접 해답을 주며, 효능감이 높은 교사보다 더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교수효능감이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김은심, 박수미, 2003; 조부경, 서소영, 2001; Ashton, 1984; Gibson & Dembo, 1984)와 일치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음악활동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음악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수환경에 있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과 달리 i-Scream이나 Tnara에 의존하기보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자신이 준비한 다양한 자료를 계획한 활동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음악수업에서 음악교구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 구비해놓거나 다양한 악기를 준비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학교관리자가 음악교구 준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교사 개인이 준비를 할 만큼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음악지도 시 교육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환경 및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비해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교사 본인의 노력 부족과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특정교과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의 교과지도에 있어 매개 변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둘째,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없는 부분으로는 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 간에 유사한 실재를 보이거나 음악교수효능감의 높은 교사 간에 또는 낮은 교사 간에 다른 실재가 나타나기도 하여 효능감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없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 간의 유사한 실재로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음악교육의 필요성에서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명의 교사 모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거나 재학 중일 정도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음악 관련 경험이 많고 음악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악교수효능감과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과목에 대한 관심 및 흥미가 특정교과의 교수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이라는 기존의 보고와 상치되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수에 대한 효능감이기에 음악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음악과 관련된 경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등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예측해본 결과, 이는 연구대상이 모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거나 재학 중이기에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음악을 심화전공하지 않아도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심화전공과는 상관없이 음악수업을 지도하는 대상학년과 경력을 통제하여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음악교수 실제를 연구한다면 또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의 높은 교사 간에 또는 낮은 교사 간에 다른 실체는 교직 이후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교육에 대한 동료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시각 및 질 높은 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들에게 바라는 점에서 나타났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인해 교직 이후에 음악 관련 연수를 찾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하는 교사가 있었고, 음악교육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과 바라는 점에 있어서도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이 달라도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하고 수준이 같아도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직교육에서의 음악교육경험이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연수 참여 동기가 자신의 음악적 계발과 음악교수 자료의 습득과 현장에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참여한 반면,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주변의 권유 및 연수 참여에의 의무감, 음악교수 자료의 습득 등의 이유로 연수에 참여하였다고 답한 연구결과(방은영, 박찬옥, 2005)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직에서의 효과적인 음악교수를 위한 교사의 능동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음악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음악교사효능감의 증진과 능동적인 교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보다 많은 수의 관찰 대상과 다양

한 교사의 변인을 대상으로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교수 실재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음악교수의 실재를 위해 음악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주영(2007). 유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과학교육 실재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6(1), 85-113.
- 김아영(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 김유정(2005). 가정과교사의 교사 효능감 측정도구 타당도 검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129-143.
- 김은심, 박수미(2003). 유치원 교사의 동작교수 효능감에 따른 동작교육에 대한 태도 및 교수 실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241-266.
- 박관성(1999). 교사효능감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영, 박찬옥(2005).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에 관한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9(4), 5-30.
- 임무경(2008). 체육교사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47(4), 113-122.
- 임성택(2011). **교사효능감**. 서울: 강현출판사.
- 조부경, 서소영(2001).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에 따른 과학 교수 실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3), 622-634.
- 정다은(2011).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2012a). 음악교사효능감의 직무수행영역 확인 및 구성요인 탐색. **음악과문화**, 26, 151-176.
- 최미영(2012b).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음악교육연구**, 41(2), 339-368.
- Armor, D., Conroy-Osequera, P., Cox, M., King, N., McDonnell, L., Pascal, A., Pauly, E. & Zellman, G. (1976). *Analysis of the school preferred*

- reading programs in selected Los Angeles minority school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Ashton, P. T.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9(5), 28-32.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erman, P. & McLaughlin, M. W. (1977). *Federal programs supporting educational change, Vol. 7: Factors affecting implementation and continuatio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Cooper, H. & Good, T. (1983). *Pygmalion grows up: Student in the expectation communication process*. White Plains, NY: Longman.
- Denham, C. H. & Michael, J. J. (1981). Teacher sense of efficacy: A definition of the construct and a model for further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5, 39-61.
- Gibson, S. &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9-58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Midgley, C., Feldlaufer, H., & Eccles, J. S. (1989). Change in teacher efficacy and student self-and task-related beliefs in mathematics dur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247-258.
- Saklofske, D. H., Michayluk, J. O. & Randhawa, R. S. (1988). Teacher's efficacy and teaching behaviors. *Psychological Reports*, 63, 407-414.
- Woolfolk, A. E., Rosoff, B., & Hoy, W. K. (1990). Prospectiv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their beliefs about managing student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6, 137-148.

ABSTRACT

A Study on Music Teaching Practices Based on Music Teaching Efficacy

Mi Young Choi · Da Eu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qualitative analysis on music education practi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music teaching efficacy. Among 235 elementary music teachers, upper and lower 20 percent teachers by the standard of scores of music teaching efficacy scale were chosen, then after considering basic variables, two teachers with high music teaching efficacy and two teachers with low music teaching efficacy were sampled. Four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ive times of non-participant observations per each music teacher were involv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with high music teaching efficacy and those with low music teaching efficacy, with regard to music teaching, interaction with students, and teaching environment. Second, regardless of the level of music teaching efficacy, there were similarities to interest and importance in music and music education. Lastly, some differences were revealed in music experiences after schoolteaching, perspectives on the attitude of colleague, school administrator, and parents toward music education, and desire for high quality school music education regardless of music teaching efficacy's level.

key words : music teaching efficacy, music teaching practice, elementary music education

투고일: 2013년 8월 31일, 심사(수정): 9월 27일(10월 17일), 게재확정일: 11월 4일